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20년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 호텔업계를 지원하여 향후 서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추진불가 사업과 각종 체육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인한 감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 해당사항 없음.
- 세출: 기정예산 2,533억 8천6백만원 대비 0.74%인 18억 8천4백만원 감액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비율(%)
합 계 (일반회계)	(X20,526,622) 251,501,682	(X20,526,622) 253,385,682	△1,884,000	△0.74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15억 168만원으로, 기정예산 2,533억 8,568만원의 0.74%에 해당하는 18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세부내역은

-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1건, 20억원이 증액되고,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억 4,900만원,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5억 9,900만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억 1,500만원,
-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2억 2,700만원,
-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3억 6,000만원,
-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원
-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5억원,
-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1억 5,800만원,
- 가족스포츠 활성화 1억 4,600만원,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5,000만원
- 스포츠교실 운영 8,000만원,
-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4억원,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1억원,
-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 등

총 15건, 38억 8,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임.

나. 예산안 검토

(1)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관광 수입 감소액은 2019년 수치의 20~30%인 3,000억~4,500억 달러(U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¹⁾
- 팬데믹 선언으로 관광객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관광업계 피해와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2002년 사스(SARS), 2011년 메르스(MERS) 때보다 관광객 수나 소비력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훨씬 심각한 상황임.
- 서울 소재 관광업종의 피해 동향 조사(1.31~4.3)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약 1,982억원이고, 여행업(121개), 호텔업(14개), 관광식당업(11개)의 피해 접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관광업계 피해동향〉

업종	피해접수업체	취소건수	취소인원(명)	피해금액(원)
국내·외여행업	25	841	27,070	6,284,646,070
국내여행업	4	155	1,010	2,857,415,090
국외여행업	46	9,177	25,098	10,436,293,911
일반여행업	46	213,985	277,505	156,737,915,559
관광호텔업	14	29,121	22,064	9,015,484,206
관광식당업	11	5,109	42,920	1,402,097,000
기념품판매(면세)	3	1,106	29,024	4,116,072,000
국제회의기획업	3	23	-	1,934,800,000
숙박업	2	30	13	9,500,000
기타	10	2,847	5,227	5,409,902,840
총합	164	262,394	424,394	198,204,126,676

(자료: 서울시관광협회)

1) <https://www.unwto.org/impact-assessment-of-the-covid-19-outbreak-on-international-tourism>

- 무디스를 비롯한 국외 전문기관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8%에서 -0.8%로 조정하였고,

〈국내 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구분	무디스	영국 캐피탈이코노믹스	S&P	평균
당초	1.9	2.5	1.1	1.8
조정(3월 23일 기준)	0.1	-1.0	-0.6	-0.8

성장률 하락 전망에 따라 전국은 50조 4,010억원, 서울은 10조 3,570억원의 국내총생산 하락이 전망되고 있음.

〈성장률 변화에 따른 GDP 증감액〉

(단위 : 십억원)

구분	2019년 GDP 잠정치	2020년 예상 성장률 및 GDP 추정치		증감액
		1.8%	-0.8%	
전국	1,913,964	1,949,053	1,898,652	△50,401
서울	393,477	400,496	390,139	△10,357

- 소상공인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코로나 19가 서울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²⁾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피해액은 총 4조 4,137억으로 추정되었고,

- 세부 지출항목별로 오락·문화 1조 3,867억원, 음식·숙박 2조 321억원, 기타상품·서비스 9,94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산정했음.

2)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97, 2020.4.6.)

-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의 외래관광객 관련 피해액은 5조 2,311억원으로 추산했음.

〈서울 외래관광객 손실액 추정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총 지출경비	개별 숙박비	쇼핑	식음료비	기타
서울 손실액	52,311	11,020	24,988	6,328	9,975

(2) 관광업 위기 극복 노력

-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광업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실시, 내국인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국내 휴가비용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가 경제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단계별로 위기 극복 대응책을 마련하고 침체된 관광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수요 확대와 관광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소재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지원(융자)을 '20년 2월5일부터 시작했는데, 융자지원의 경우 사드·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이미 최대범위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채만 증가하는 것이어서 업체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음.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

영안정자금 지원(대출 또는 보증) 등 기존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음.³⁾

- '20년 3월 서울시는 전향적인 자세로 영세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1,000개 업체를 선정, 500만원을 사업비로 균등 지원하여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여행콘텐츠 등을 사전에 준비, 코로나 이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5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음.
- 한편, 개최 예정 행사의 90% 이상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광업종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국제회의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변경, MICE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정 예산 조정을 통해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에 26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 **소요예산 : 총 2,600백만원**
 - 서울 MICE산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 2,500백만원
 - MICE업계 종사자 대상 전문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 100백만원
- **추진방법 : 사업계획 변경**
 - MICE 사업 중 코로나 19 인한 미집행 예정 예산 조정
 - ① (서울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1,850백만원 감
 - ②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관련 사업 750백만원 감

1) 3)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 등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48.8%)는 응답이 만족한다(29.1%)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추경안 검토

(가) 추경안 개요

- 관광체육국의 이번 제2차 추경은 증액 1건, 20억원과 감액 15건, 38억 8,4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액 1건은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20억원이고,

감액 15건 중 관광분야 1건은 STO 기간제근로자 채용규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코로나19로 인한 추진불가 사업 감액으로 인한 감액 5억 4,900만원이고, 체육분야 14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운영 횟수 축소로 인한 감액 33억 3,500만원임.

(나) 증추경사업

- 관광체육국의 증추경 예산사업은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사업 20억원이 편성된 것인데,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서울시 호텔업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향후 관광시장 회복에 대비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서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관광체육국에서는 기존의 지원방식과 다르게 여행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50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MICE 업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6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에는 호텔업계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원(상품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 5백만원 × 400개소)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은 (i)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50억), (ii)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26억), (iii)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로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의 사스, 메르스 때보다 훨씬 피해가 커서 인·아웃바운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생의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광·MICE 업계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업들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기획과정에서 보인 혼선이나,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접수 기한을 4월17일에서 4월22일로 연장하여 신청을 받았음에도 당초 목표로 한 1,000개 업체에 미달한 900여 업체만이 신청한 것을 보면 정책의 설계나 홍보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관광 생태계의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발전과정에서 특히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공이 있는 인바운드여행사, 그리고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의 폭을 넓히는 등의 미세한 정책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임.

(다) 감추경사업

- 관광체육국의 감추경 예산액은 관광분야가 14%인 8,400만원, 체육분야가 86%인 33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관광체육국 감추경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기정예산	감추경		변경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감액율		
총 계	253,386	△ 3,884	1.5%	249,502	15
관 광	84,123	△ 549	0.7%	83,574	1
체 육	169,263	△ 3,335	2.0%	165,928	14
관광정책과	70,977	△ 549	0.8%	70,428	-
서울관광재단	55,510	△ 549	1.0%	54,961	1
관광산업과	13,146	-	-	13,146	-
체육정책과	95,175	△ 714	0.8%	94,461	2
체육진흥과	46,512	△ 2,621	5.6%	43,891	12
전국체전기획과	12,291	-	-	12,29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283	-	-	15,283	-

- 감추경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 분담금 미확보로 인한 감액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억원), 신청업체 수의 미달로 인한 감액(민간협력을 통한 주민 개방 체육시설 확충 1억원), 용역계획 연내 수립 불가로 추진 중단 감액(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또는 미지출 예상 예산 감액, 프로그램 축소 등 사업 조정 감액 등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인한 예산 감액이 대부분임.

〈관광체육국 감추경 사업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세부내역
		예산 현액	감추경 예산	
	합 계		△3,884	
	관광정책과		△549	
1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5,510	△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조정(△119) · 관광·MICE 통계분석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20) · 아시아·중동지역 특화관광사업(코로나19로 인해 교역전 및 현지홍보 행사 등 추진 불가)(△410)
	체육정책과		△714	
2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9,436	△5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건강생활체육위크숍 미개최 예상(△14) · 스포츠 성평등위원회 운영 축소(△5) · 동경U-14 축구 친선교류(파견) 취소(△20) · 동경아시아주니어(파견)취소(△10) · ICG하계국제청소년체육대회참가취소(△70) · 도쿄하계올림픽포상및격려비불용(△100) · 국제 유스스포츠대회 미개최 예상(△230) · 회원 종목단체 국제교류 미개최 예상(△50) · 세계태권도 포럼 미개최 예상(△100)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4,299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취소(△80) · 국제대회 참가계획 축소(△35)
	체육진흥과		△2,621	
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S-리그) 운영	1,62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그 연기에 따른 축소 운영(△190) · 소년축구리그취소(△37)
5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4,186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종목 단체별 대회 취소(△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취소, 하반기 추진 예정, 종목별 지원액 축소 ·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사회인 야구대회 취소(120백만원) -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장기대회 (90백만원) - 기타 사업 하반기 추진 예정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세부내역
		예산 현액	감추경 예산	
6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500	△250	· 1둘레길 1러닝코스 운영 횟수(50회→25회) 축소(△100) ·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기간축소(△150)
7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1,000	△500	· 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기간 축소(△500)
8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450	△158	· 찾아가는 체육관 운영 사업 횟수(110회→60회) 축소(△88) ·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사업 취소(△70)
9	가족스포츠 활성화	550	△146	· 청소년스키캠프 사업 취소(△70) · 가족파크교실운영횟수(10회→5회)축소(△26) · 가족스포츠캠프운영횟수(3회→2회)축소(△20) · 서바이벌프로그램운영사업취소(△30)
10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00	△50	· 학교 스포츠클럽 예선리그 축소 운영(△50)
11	스포츠교실 운영	1,7700	△80	· 청소년 야구교실 기간 축소(하반기 추진) 운영(△80)
12	생활체육시설 확충	7,262	△150	· 응봉 족구장 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확보 어려움
13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2,090	△400	· 송파구 작은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확보 어려움
14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400	△100	· 지원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지원으로 불용 예상
15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200	△200	·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용역계획 연내 수립 불가

다. 종합검토의견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그 극복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의 지원정책과는 다른 과감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적 지원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이 적절하며,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의 재도약 시스템 구축과 회복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수요 확대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됨.⁴⁾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긴급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 항공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이 부각돼 이에 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산업은 물론 민간 체육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거나 운영 중인 체육시설이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방침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임에도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미약하여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아쉬운 현실임.

4)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97, 2020.4.6.)

- 특히 이번 관광체육국 감추경 예산 38억 8,400만원 중 체육분야 감액이 86%인 33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체육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지원대책도 수립된 바 없음.
- 따라서 정부의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체육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미집행된 체육관련 예산은 영세 체육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에도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라. 참고자료

○ 2020년도 제5차 이후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차수	일자	사업명	간주액
합계			3,929,580
제6차	2020.3.31.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87,030
제6차	2020.3.31.	고척스카이돔 운영	14,800
제6차	2020.3.31.	장충체육관 운영	13,000
제6차	2020.3.31.	생활체육시설 확충	3,700,000
제6차	2020.3.31.	시설물 관리 물품 구입	5,000
제6차	2020.3.31.	기본경비	109,750

※ 2020년도 제5차 간주처리 내역은 「2020 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11 참고

※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